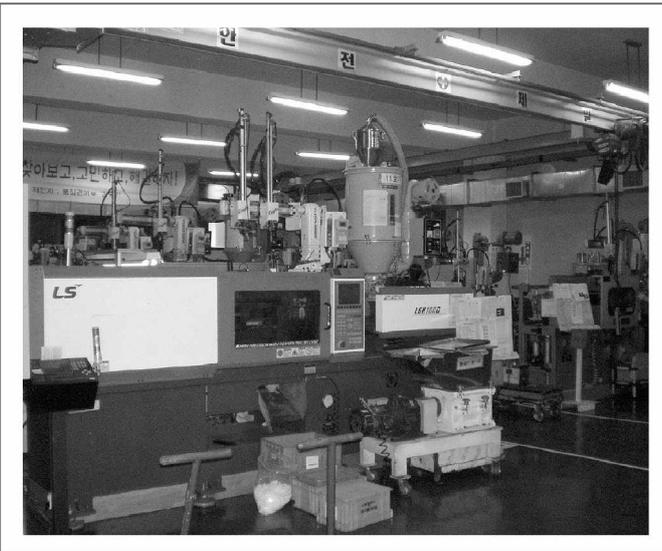


정밀금형 제조업체 '신성정밀산업사'

기자는 산업용 강화 플라스틱, 고기능성 형상제품 및 금형을 제작하고 있는 신성정밀산업사를 방문하여 이병옥사장을 만나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신성정밀산업사는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인천의료원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4층 건물로 1층은 신성정밀산업사, 2층은 (주)신성시스템이 사용하고 있다.

신성정밀산업사는 1994년 2월에 설립하여 올해로 15살이된 청소년 기업이고 (주)신성시스템은 2005년 3월에 설립된 3살 박이 유아 기업이지만 2006년도에 3백 만불 수출탑을 수상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5백 만불 수출탑을 수상한 small giant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설립당시 사출 기계 2대 갖고 이병옥 사장을 포함하여 3명으로 출발하였으나 현재 사출기계 2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56명이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했다.

1층 신성정밀산업사에는 정밀금형 제작 및 개발을 위해 필요한 부설 연구, 금형 제작현장과

측정실이 있으며 생산 현장에는 20대의 사출기계에 서 한국후지제록스와 신도리코에 납품하는 복사기 부품이 생산되고 있으며 현장은 clean 사업장으로 지정된 업체답게 깨끗하고 쾌적한 작업 현장으로 금형 개폐시 나는 소리가 옛날 떡방아 찧는 소리와 흡사하여 마치 방앗간에 와있는 느낌마저 든다.

2층 (주)신성시스템의 작업 현장은 신성정밀산업사에서 생산한 복사기 부품을 조립하는 라인으로 마치 깊은 산속 절에 들어와 있는 느낌을 받았다.

작업 현장을 둘러보고서 기자는 이병옥사장의 기업 마인드를 알 수 있었다.

기업의 외부 환경이 전년보다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사장은 올해의 경영방침을 제2의 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도전의 해로 첫째 영업제일주의, 둘째 실리제일주의, 셋째 유연한 조직과 인재를



대표이사 이 병 옥
신성정밀산업사
032-876-9906

성으로 정했다.

첫째 영업제일주의

전년 매출액 대비 30% 증가를 올해의 매출 목표로 설정하고 이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제품 개발, 신규 업체 확보, 기존 거래처 유지 증대 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성 가능한 것으로 본다. 이사장은 올해의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base는 바세리즘(baserism)이라고 한다. 바세리즘이란 before service + after service + -ism의 합성어로 사전·사후 서비스주의라고 말하고 있다. before service란 말은 낯설게 듣는 단어다. 이사장은 꼭 기업을 운영하면서 after service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before service도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광고 및 홍보를 통해서만 제품이나 기업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소비자나 user를 찾아가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

둘째 실리제일 주의

이익 구조를 재정립하는 것으로 매년 납품 단가는 하락하고 원자재 값은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 한다. 이런 현상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원가 절감 및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밖에 없다. 전 부서에서 원가절감 및 비용 절약 30%를 올해의 목표를 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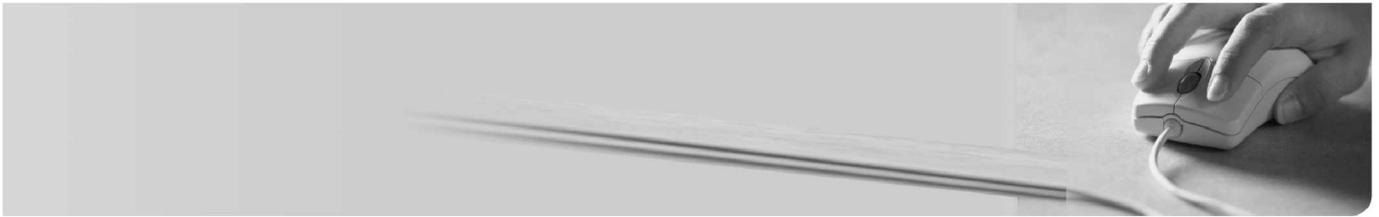
셋째 유연한 조직과 인재 육성

쉽게 말하면 2002년도 월드컵 당시 전국가대표 감독 히딩크가 주장한 multi-player를 말한다. 이는 꼭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뿐만 아니라 타부서, 타직원이 맡고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 개발이나 교육을 통해서 배양하자는 것이다.

이병욱 사장은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로 주자(朱子)의 권학문(勸學文)을 인용하면서 “고여 있는 물은 썩



기 쉽다”고 말을 하면서 현재 상황이나 환경에 안주하지 말고 기업이나 개인은 지속적으로 배우고 변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사장은 “2008년 올해는 우리 신성이 one이 되고자 하는 원년으로 삼았습니다.” 하면서 기자인 나에게 one하면 생각나는 게 없냐고 반



최고, 첫째를 뜻 합니다. 먼저 하나는 화합을 의미 합니다. 우리 신성 임직원 모두 서로 화합, 단결하여 한 가족과 같이 하나의 결정체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최고는 제품이나 품질에서 최고를 의미합니다. 기업은 소비자나 user에게 최고의 품질로 제품을 공급해야할 의무가 있고 반면 소비자나 user는 최고의 품질로 제품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첫째는 산업용 강화 플라스틱, 고기능성 형상제품 및 금형 제작 기업의 대명사가 되는 것이지요. 산업용 강화 플라스틱 제품 하면 신성, 신성하면 산업용 강화 플라스틱 제품 이렇듯이 국내 및 세계적인 부품 소재 전문 venture 기업으로서 대명사가 되고자 합니다. 또한 기술 경영혁신 기업, 인천시 지정 유망중소기업 및 inno-biz 기업으로 동종업계를 lead하는 기업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one되기 위해서는 3C 정신이 필요합니다. 3C란 도전(challenge)정신, 협동(cooperation)정신, 창조(creation)정신이 필요 합니다. 신성이 one이 되려면 끊임 없는 변화, 혁신, 개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문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이사장은 “one은 하나,

|기술표준 2008. 3

